

해인사

매머드 불교단지 조성

박물관·노천삼존석불·만불전등 '한곳에' 10년 계획... 해인초등학교부지 2만5천여평에

법보종찰 해인사(주지 성주)가 제2차건에 비결만한 대작불사를 계획 중이다. 60여억원의 예산으로 연건평 5백 10평 지상 3층 규모의 성보박물관 건립을 추진해오던 해인사는 당초 방향을 바꿔 성보박물관외에 삼존노천석불 불교회관 대경연구소 만불전 등을 마련하는 매머드급 해인불교단지를 조성키로 했다. 조성 장소는 일주문아래 옛 해인초등학교 부지 2만5천여평. 이처럼 계획이 변경된 것은 기존의 경내 건축물들이 밀집해 있어

증개축에 많은 문제점이 야기되는데 밀려드는 관광객으로 인해 수행 풍토가 크게 훼손됐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대장경 이운 6백주년(1998년)을 기념하고 월드컵축구가 우리 나라에서 개최되는 2002년이 해인사 창건 1천2백주년이 되는 점을 반영했다. 삼존석불조성은 자운스님과 성철스님 생존당시부터 꾸준히 거론되어 온 불사인 점도 고려됐다. 불사가 회향되면 본찰은 스님들의 전문 수행도량으로, 해인불교단지는 일반불자들의 수행공간으로 활용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백억원이 소요될 이사업의 최대관건은 재정문제다. 현재 확보된 재원은 성보박물관건립기금으로 모금된 35억원, 향후 10개년 계획으로 추진한다는 방첩이나 해인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도시기반이 취약해 재원마련이 쉽지않을 전망이다. 그외에 사중의 합의도출이라는 점도 남아있다. 여러 문종이 모여 민용살림을 꾸려가는 도량인만큼 대작불사의 성공적 회향을 위해서는 대중합의가 전제로 남아있다. 해인사 기획실장 무관스님은 "일단 5월에 성보박물관이 착공될 예

정이다"며 "문화재관리국을 포함한 문화계, 학계 등 관계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세미나를 거쳐서 전체적 윤곽을 잡아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해인사는 신라 애장왕 3년(802년) 10월 순응(順應) 이정(利貞) 두스님에 의해 창건됐으며 현재 103개 말사와 16개 부속암자를 거느리고 있는 한국불교의 대표적 사찰이다. 대작불사가 성공리에 마무리되면 지난 95년 유네스코지정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고려대장경을 보유한 해인사는 명실공히 세계적 수행도량으로 거듭나게 된다.

대구=이윤호 기자

경주에 한방병원

8월 개원... 탁아소등도 운영

대구여대 한방(원장 시연스님)은 8월 경주시에 99평 5층 규모의 한방병원 무료예약장 탁아소를 개원한다.



시연스님은 최근 "불교비법으로 단돈 불치병치료를 위한 '不老(不老) 불로화정'을 개발했다"며 "不老(不老) 불로화정은 원래 산중사찰스님들을 위하여 검은 깨와 감초등을 10여종을 3년간 발효시킨 강정 건강식품"이라고 밝혔다.

본지 116호 14면 '부다리아 보은정사' 기사 중 '경북 울산시 울주군'은 '경남 울산시 울주군'의 오타이기에 바로잡습니다.



스님과 불자들을 위한 망상살버타운이 동시에 1만평에 들어선다.

스님·불자전용 실버타운 생긴다

태고종 망상에 184실 규모... 내년 7월 완공

태고종신도회(회장 김철회)와 (주) 망상살버타운(사장 이근모)은 지난 2월 25일 2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스님과 불자전용복지공간인 망상살버타운 기공식을 가졌다. 망상살버타운은 1만평 부지에 건평 4천3백평 1백84실을 갖춘 대규모

실버타운이며 법당을 갖춰 종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건축된다. 98년 7월 완공예정인 망상살버타운은 총공사비 1백50억원(정부보조 89억원)이 투입되며, 태고종 신도회에서 스님과 재가불자를 중심으로 회원을 모집할 예정이다.

컴퓨터 통신포교 '걸음마'

불교관련 8곳뿐... '파라미타' 3월 등록

전산사실이 나후된 불교계가 행정전산망 구축과 가상공간 포교를 위해 상용통신망 활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데이터 하이텔 나우콤 유니텔 등의 상용통신망에 등록된 종교 관련 단체는 총 60여개. 이중 불교관련 단체는 13%(8개)에 불과해 불교계의 통신망 활용은 아직 걸음마단계에 머물러 있다. 최근에는 (사)파라미타청소년협회(총재 성타스님)가 오는 3월초부터 (주)나우콤에 '파라미타'를 개설한다고 밝혀 불교행정에 상용통신망을 수용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으고 있다. 그러나 불교계의 상용통신망 사용량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용통신망의 규모와 비교해 뒤떨어지는 실정. 국내 상용통신망 사용량은 'PC 공중전산망 가입수'로 알 수 있다. 지난 94년부터 95년까지 'PC 공중전산망 가입수'에 관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전자계시판(BBS)의 경

우 5백만여회선에서 8백만여회선으로 38%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회선 증가는 당연히 이용자 증가를 의미한다. 상용통신망에서 종교단체의 활동은 동호회와 폐쇄그룹(CUG)으로 각기 구분된다. 이 중에서 행정전산망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폐쇄그룹, 폐쇄그룹이란 특정 단체가 컴퓨터 통신을 이용해 회원 상호간의 업무 연락 자료수신 등의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상용통신사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그러나 이 서비스는 가입절차가 까다롭고 이용자를 제한한다는 단점이 있다. 반면 가입이 자유로운 동호회는 일반 사용자의 접근이 용이해 포교의 성과도 높일 수 있으나 자료 보안성이 미흡하다. 따라서 전산사실이 부족한 불교계는 하나의 자구책으로 상용통신망을 선택할 수 있으며 상용서비스를 선택할 경우 행정과 포교, 공개와 비공개라는 활동 목적을 분명히 하면 된다. <육>

“옛날 놀이중에 이렇게 재미난게 많은 줄 몰랐어요. 앞으로 친구들과 같이 꼬리 따기도 하고 몸뚱타기도 하며 놀래요.” 지난 2월22일 정월대보름을 맞아 공창종합사회복지관(관장 심산스님)이 개최한 '주민 민속놀이'에 참여한 한 초등학생의 소감이다. 덕유사회복지관(관장 영담스님)의 보름맞이 '민속놀이 큰마당'에 동참한 주민 6백50여명도 흥미롭고, 마음이 설레는 마한가이다. 이번 정월대보름 행사는 '발렌타인데이' '화이트데이' 등 국적도 뿌리도 없는 유행의 명절로 자의반 타의반으로 몸살을 앓아왔던 지역주민들에게 건전한 민족공유의 놀이를 알리고 화합을 도모했다. 이같은 불교사회복지관들의 행사는 지역사회에서 민족 문화 전통을 살리는 공간으로 새롭게 자리 매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불교복지관들이 제기치기 놀이 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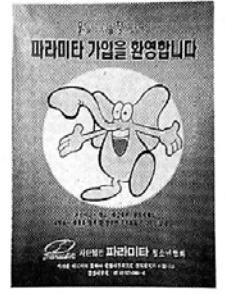
호 강강수월래 신발던지기 등의 민속놀이 재현과 생활화를 통해 민족전통문화 회복을 위한 구심체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또한 '불교는 민족종교'라는 그동안의 외침에 대해 명실상부한 뉘를 해내고 있다는 여론이다.

종립학교 불교학생회 "새내기 불자 모임자"

청교련·파라미타 회원 배가운동 전개

새학기를 앞두고 각 종립학교 불교학생회가 새내기 법우를 맞이하는 열기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또한 대한불교청소년교회연합회, 파라미타청소년협회도 회원 배가에 나섰다. 동대부중(교장 김원식)은 신입생을 대상으로 종교실태조사를 실시, 이를 토대로 체계적인 신입생포교 활동을 펼친다. 종교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무종교학생, 불교에 관심있는 학생들을 우선적으로 포교한다는 신입생 포교방안을 세우고 있다. 광동여고(교장 김양수) 불교학생회는 신입생포교를 위해 3월 한 달동안 매일 조석예불을 병행한다.

또한 포스터와 회보를 제작, 학생회를 소개하고 교법사와 회원들이 주축이돼 신입생포교에 적극적으로 나선다. 금년을 '효경사상 실천의 해'로 설정한 (사)파라미타 청소년협회(총재 성타)는 대대적인 신입생 모집에 나서고 있다. 이를 위해 파라미타는 최근 추진사업과 활동내용 등을 소개하는 팸플릿을 비탈용스터 (사진), 스티커, 회원수첩을 제작, 전국의 각 사찰과 학교에 배포하는등 신입회원들이 들어올 날만을 기다리고 있다. 이는 약 8천여명의 회원수를 2만여명으로 배가시켜 전국적인 청소년 단체로



위상을 강화한다는 것. 이밖에 청소년교회연합회를 비롯한 각 종립학교 불교학생회도 신입회원모집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준비하고 있다.

김중근 기자

방송가 소식

가수금·비자금 감사 佛放 경리사고 대책위

불교방송 경리사고를 재감사중인 수습대책위원회(위원장 영남)는 지난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가수금 9억9천의 행방, 비자금 조성, 고위층 관련등 이번사건의 의혹으로 남아 있는 부분에 대해 집중 감사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베트남에 체류중인 것으로 알려진 피의자 김선도씨가 없는 상황에서 과연 가수금 내역 등의 문제가 어느정도까지 정리될 수 있을 지는 미지수로 판단되고 있다. 대책위는 2월 28일까지 감사를 마무리짓고 이달 초 재감사 내용을 발표할 예정이며 중순경 이사회를 열 계획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책임자 파면하라" 전불련 BBS사건 성명 전국불교공동연합(의장 지선)은 지난 2월 26일 불교방송 공금횡령사건의 조속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파면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전불련은 불교방송 조해형사장과 송병욱 재단사무국장의 퇴진을 촉

구함과 동시에 불교방송의 공공성 확립과 여법한 운영을 위해 재단이 사회가 노력해야한다고 강조했다.

BBS 초대석 녹원스님 편 23일까지, 수행담등 회고

불교방송 'BBS초대석(PD 박상필)'은 동국대학 이사장이자 직지사 회주인 오복원스님을 초청, 스님의 출가시절부터 사미시절, 은사스님에 대한 가르침 등을 회고하는 시간을 마련한다. 지난 3일부터 23일까지 매일 밤 11시 25분에 방송될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30년동안 진행된 동국 제일가람 직지사 중창불사 회향에 얽힌 여러 가지 숨겨진 일화들도 소개된다. 또 스님의 문화예술관, 자연관, 교육관을 들여보게 된다. 방송시간 확대편성 미주 한국불교방송 미주 한국불교방송(이사장 성체스님)이 주회 1시간 방송을 4시간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사장 성체스님은 지난2월 25일 후원회의차 귀국, 조계종 포교원에 서 기자 간담회를 갖고 "미국속에 불교를 전파하는 것은 한국불교를 세계화하는 일이다"며 "주4시간 방송을 위해 한국불자들이 도움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동안의 경험으로 이 연극이 흥행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흥행 때문에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역에서 이같은 불교연극을 꼭 불자들에게 보여주고 싶어서 설의를 감행했습니다" 불교연극 '뜰앞에 잤나무'를 대전에 유치한 '예강기획'의 대표 이종운 실장(36)의 말은 신선한 충격을 준다. 한국연극의 중심지라는 동송동 연극가에서조차 '벗기·웃기' 연극이 관을 치는 요소를 정통연극은 서울에서도 본전건지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것을 잘 아는 이종운 기획자인 그가 실패를 감수하면서 지방에서 불교연극을, 그것도 철학적이고 난해하다는 평을 듣는 '뜰앞에 잤나무'를 유치한 것

은 일종의 모험으로까지 보인다. "지난해 10월 서울에서 '뜰앞에 잤나무'를 보고 크게 감명받았다"는 그는 "불자로서 이 연극을 대전에 유치를 해 화교교를 하고 싶다"고 말한다. 그는 특이한 기획자다. 기획사 '예술이 흐르는 것'을 맡고 있다. 그러나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안타깝다. "대전지역에서 불교연극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는 것같아 흐트러진다. 아무리 흥행이 우려되어도 초대권을 남발하지 않는다는 이종운실장이지만 오는 19일 공연에서 빈자리가 너무 드러나지 않았으면 하는 조바심때문에 대전과 충남지역의 사찰과 불교단체를 드나들며 연극홍보에 열을 올리고 있다. 그러나 스님들이나 불자들의 반응이 시큰둥해 안타깝다. "대전지역에서 불교연극공연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번이 자리를 잡아야 합니다."

이종운씨의 소신 강(예강)을 운영하는 그는 연극이나 콘서트설치도 흥행될 만한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한번 흥행을 보면 그 다음은 좋은 연극이나 꼭 하고 싶은 이벤트를 유치한다. 흥행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저질 작품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젊은 불자로서의 패기를 보여 준다.

이종운씨의 소신 "예강(예강)을 운영하는 그는 연극이나 콘서트설치도 흥행될 만한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한번 흥행을 보면 그 다음은 좋은 연극이나 꼭 하고 싶은 이벤트를 유치한다. 흥행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저질 작품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젊은 불자로서의 패기를 보여 준다."

이종운씨의 소신 "예강(예강)을 운영하는 그는 연극이나 콘서트설치도 흥행될 만한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한번 흥행을 보면 그 다음은 좋은 연극이나 꼭 하고 싶은 이벤트를 유치한다. 흥행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저질 작품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젊은 불자로서의 패기를 보여 준다."

이종운씨의 소신 "예강(예강)을 운영하는 그는 연극이나 콘서트설치도 흥행될 만한 것만 고르는 것이 아니다. 또 한번 흥행을 보면 그 다음은 좋은 연극이나 꼭 하고 싶은 이벤트를 유치한다. 흥행때문에 손가락질 받는 저질 작품을 유치할 생각은 없다는 그의 소신은 젊은 불자로서의 패기를 보여 준다."

부처님오신날 실법자료, 법보시책자 보급안내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15.2cm×22.3cm) 80페이지. 정가/1,500원.

스님이 들려주는 부처님오신날 이야기. 부처님오신날의 의미, 부처님의 탄생이야기, 등공양의 유래와功德, 관불의식의 유래, 불축법문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습니다. 사찰에서 초파일 법회 홍보용으로 활용하실 수 있으며 본 책자를 신도님 가정에 미리 보냄으로써 인등권선에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초파일 전에 절에 오시는 신도님께 좋은 법보시가 될 것입니다.

수록내용: 제1부 불축법요의식, 제2부 이야기 하나, 제3부 불축법문. 온라인 번호: 053-01-127096, 817-01-0172-306, 010579-0028865.

연등공양 이야기. 부처님의 탄생, 탄생이야기, 부처님께서 세상에 오신 뜻, 관불의식, 인등의 유래와功德, 등불공양에 얽힌 이야기 등을 신도님께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요약해서 수록하였으므로 초파일 법회때에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생애. 부처님의 생애를 출생, 출가, 성도, 교화, 열반 편으로 나누어 신도님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편집하였으며, 초파일 불축법회때 신도님들의 불심을 돈독히 다지는 좋은 계기가 될 것입니다.

부처님의 생애. 표지에 사찰명을 넣어드립니다. 크기/신국판 72페이지. 정가/1,500원.